

# 검찰 「양성평등정책위원회」 제1차 회의 개최

‘20. 11. 양성평등정책담당관

- 검찰 내 최초 출범한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로 활동 시작
- 김덕현 변호사(제4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) 등 각계 9명의 위원 참여
- 대검찰청 인권정책관, 사무국장 등 참여한 가운데 전체회의 개최
- 검찰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,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지침, 대검 소관 훈령·예규 성평등 관점 개정(안)을 심의의결하여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

- 「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」(위원장 김덕현)는 2020. 11. 5.(목) 10:00 대검찰청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

- 위 회의에서는 「검찰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」 수립 및 「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지침」 개정, 대검찰청 소관 훈령·예규 성평등 관점 개정 권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

※ 「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」 2020. 5. 7. 각계 11명의 위원으로 발족하여 검찰의 제도, 조직문화, 업무관행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검찰의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·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

- 첫 번째 안건인 「검찰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」 수립과 관련하여, 검찰 내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, 검찰 내 성희롱·성폭력 근절, 성평등 친화적 형사절차 구축,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음

- 특히 검찰 내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 전국 65개 검찰청 양성평등센터를 활성화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, 양성평등상담원 매뉴얼 개발, 검찰 내 성희롱·성폭력 근절을 위한 모바일앱 신설 등으로 익명 상담 및 신고를 활성화

- 또한, 젠더폭력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검찰 구성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과정 신설 및 확대를 추진하고, 성차별 없는 균형 인사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할 계획임
- 두 번째 안건인 「대검찰청 성희롱·성폭력·성차별행위 예방 및 처리지침」 개정안과 관련해서는, 성희롱 등 고충 상담 및 고충 사건 조사 절차 보완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에 관하여 심의, 의결하였음
- 특히 대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컨트롤타워 기능 확대를 위해 일선 직원이 대검에 신고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고, 성희롱 등 2차 피해의 정의 및 유형을 구체화하여 지침에 명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음
- 세 번째 안건인 ‘대검찰청 소관 훈령·예규 성평등 관점 개정 권고’와 관련해서는, 검찰의 성인지 의식 제고 및 검찰 업무의 양성평등 관점 반영을 위해 약 270여개의 훈령·예규를 성평등 관점으로 검토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44개의 훈령·예규의 개정을 권고하는 방안
- 성평등한 의사결정을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하고, 공무원 채용 시 성차별 없는 공정채용을 명시, 성별 고정관념 또는 사회적 통념이 반영된 용어를 순화하는 등 대검찰청 훈령·예규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였음
- 대검찰청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을 토대로 양성평등 관점에 입각하여 검찰의 제도, 조직문화, 업무관행 등을 개선할 예정임